



25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컬링 경기에서 한국 관중들이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의 캐리커처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컬링으로 행복한 11일... 평창 최고 스타

‘강팀 킬러’ 한국 여자컬링 스웨덴에 3-8 패하며 銀 ‘팀 킴’ 패러디 열풍

외신도 집중 보도... 세계적 인기

평소 값있으면 많은 이들이 늦잠에 빠져 있었을 일요일 오전이었다. 하지만 25일의 모습은 어느 일요일과 달랐다. 오전 9시 5분 시작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과 스웨덴의 여자 컬링 결승전을 보기 위해 대한민국이 일찍 깨어났다. 티미널, 장례식장 등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컬링도 있었다.

사람들은 함께 ‘영미야~’를 외치면서 거침없이 달려온 여자 컬링팀을 응원했다. 결과는 3-8패.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 사람들은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라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컬링은 전력 외 종목이었다. 또 많은 이들에게는 룰도 모르는 낯선 종목이었다.

그러나 스킵 김은정, 리드 김영미, 세컨드 김진영, 서드 김경애, 후보 김초희로 구성된 대표팀 ‘팀 킴’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달라졌다. 2차전 일본전에서 단 한 번 패했을 뿐 한국 대표팀은 8승 1패, 예선 1위로 당당하게 준결승 무대에 오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영미를 중심으로 얽힌 이들의 남다른 관계도 ‘팀 킴’의 인기엔 한몫을 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자신들의 인기에 깜짝 놀라는 수줍은 그들이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확실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경기 내내 표정 변화없이 ‘영미’를 외치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자랑한 김은정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특히 준결승 상대였던 일본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김은정의 고향을 찾아가 방송을 하기도 했고, ‘팀 킴’의 산실인 의성여고의 응원전 현장을 전한 외신들도 있었다.

‘영미’는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을 지켜

본 많은 이들은 컬링팬이 됐다.

‘팀 킴’은 패러디 열풍도 만들어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로봇 청소기와 대결레 등을 든 컬링을 흉내 내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컬링의 매력에 푹 빠져있던 지난 2주,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탄생한 최고의 스타 중 하나가 됐다.

수호랑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또 다른 스타다. 수호랑은 백호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

다. ‘수호’는 올림픽의 든든한 마스코트로 선수와 참가자 그리고 관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 정선 아리랑을 상징한다. 친근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수호랑은 호돌이에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됐다. 그 인기 ‘폼질 대란’으로 이어졌다. ‘어사와 수호랑’ 등 일부 제품들이 품질 되면서, 인터넷에서 정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등 수호랑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 인기를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

문 대통령 ‘맞춤형 축전’ 훈훈하네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형 축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의 활약을 더욱 빛나게 했다.

지난 24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매스 스타트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의 눈길이 문 대통령에게 쏠렸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형식적인 인사라 아닌, 메달 상황과 경기에 맞는 ‘맞춤형 축전’이었다.

우리 선수단에 첫 메달 소식을 전해줬던 쇼트트랙 임효준에게 “일곱 번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게 믿겨 안 되는 감동을 받았습시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문 대통령은 윤성빈에게는 “최고의 설 선물이 되었습니다. 추억의 놀이였던 썰매는 윤 선수 덕분에 즐거움 놀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썰매 강국으로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는 축전을 보냈다.

선수들은 “시원스럽게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모습에서 최민정 선수는 역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스피드 장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이상화 선수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세계 최고의 방송을 보내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딸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가족들도 감사드립니다”, “0.01초의 간발의 차가 너무 아까웠지만 어려운 종목에서 기적 같은 기록을 냈습니다. 참으로 장합니다”, “스노보드의 세기를 열기 위해 이상호 선수가 눈발에 흠뻑 땀과 노력이 소중히 결실로 이어져 너무나 기쁩니다. 축하합니다”와 같은 대통령의 축하를 받았다.

그리고 “남여전 선수들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남

을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쇼트트랙 선수들 정말 고맙습니다”는 위로도 받았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만형’ 이승훈과 ‘왕따 주랭’으로 논란에 중심에 서야 했던 김보름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걸게 되자, 어떤 축전이 나올까 궁금해했다.

문 대통령은 이승훈에게 “대한민국 빙상의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왜 만형인지 보여주세요. 막관 폭발적인 역주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정재원 선수도 맡은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함께 거둔 금메달입니다”는 말로 박수를 보냈다.

김보름에게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일어섰습니다. 메달보다 값진 교훈을 함께 얻었을 김 선수에게 올림픽이 남다른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라는 여운이 남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치권 정쟁 ‘금메달감’

한국당, 北 김영철 방남 통일대교 ‘육탄 저지’ 민주당 “이해할 수 없는 작태...국제적 망신”

평화 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평창 올림픽 폐회식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기 위해 1박2일 ‘육탄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경로인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전날 저녁부터 틀어막

았지만, 김 부위원장 일행이 이날 통일대교 동쪽의 우회로를 통해 남측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6시간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은 전날 오후 7시부터 통일대교 남단 도로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해 이날 오전까지 16시간이 넘는 밤샘 농성을 펼쳤다. 이날 농성에는 홍준표 대표가 가세하는 등 90여명의 의원들이 집결했고 당원과 당직자 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 수준까지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의원들을 에워싸면서 충돌도 빚었다. 통일대교 남단은 한국당 의원과 당원들이 타고 온 차량과 경찰차 등으로 뒤엉켜 도로가 꽉 막혔고, 일부 당원과 당직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농성 중 ‘김영철 즉시 사살’, ‘철천지 원수’, ‘살인마’ 등 원색적인 표현도 쏟아냈다.

홍 대표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통일대교를 지켜주시는 덕분에 김영철이 개구멍으로 빠져나갔”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김영철이 위키힐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위키힐도 조용치 않을 것이다. 저희 당원들과 시민들이 김영철을 그리 쉽게 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성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김 부위원장의 방남 허용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는 창계광장에서 10만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저지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의 ‘통일대교 점거 농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도로에 드러놓고 점거하는 등 과격한 시위로 일관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라며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 부위원장이 2014년 남북군사회담 때 북측 대표로 나왔을 때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대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 부위원장 방남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백 대변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제 원내대변인)라며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인정하고 대응적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 응원단 오늘 귀환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 299명이 26일 북한으로 귀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4명과 선수단 45명, 응원단 229명, 기자단 21명 등 299명이 26일 낮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출신의 북한 선수단 임원 1명은 이들과 별개로 일본으로 귀국한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남측에는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을 위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 8명만 남게 된다. /연합뉴스

지분물건/문중산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천·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해요일 오전반: 2018. 3. 6.(화) 09:10~13:00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13:00	·월요일 오전반: 2018. 3. 5.(월) 09:10~13:00 ·금요일 오전반: 2018. 3. 9.(금)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18:00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 선 대: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광주여대: 3월 13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교육기간: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 강 료: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9일(금)
·교육기간: 2018년 3월 13일(화) ~ 2018년 6월 19일(화)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 강 료: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접수문의: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부동산 컨설팅과 재테크 실전과정

부동산경매/공매, 부실채권(NPL), 팽처리APT 등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가)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일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회,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 강의기간: 3월~6월(15주) 매주 수요일 15시/19시
▶ 특별수강료: 20만원(선착순 50명 마감)
▶ 접수신청상담: 조선대 평생교육원
☎(062)230-7700

무료 공개 강의

2018년 부동산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특강

일시: 조선대 평생교육원 3월 7일(수) 19시
장소: 평생선 강의실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